

으로 남은 다른 날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네. 두 가족에게는 매일매일이 축제의 날이었고,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곧 성스러운 신전과 다름없었으니, 그들은 거기서 무한하고 전능하시며 인간을 벗 삼아 다정하신 존재를 부단히 찬미했지. 지고의 권능이 안겨주는 이러한 신뢰감은 과거에 대한 위로와, 현재에 대한 용기와,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주었네. 이리하여 불행의 힘에 못 이겨 자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은, 불행에 빠지지 말라고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감정들을 자신들 안에서, 또 아이들 안에서 키워나갔던 게야.

하지만 때론 가장 끈게 다듬어진 영혼에도 그 영혼을 흐트리트리는 구름이 피어오르듯, 두 집안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슬퍼 보일 때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여, 의견보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애 통한 생각과 떨어트려 놓았다네. 여기서 각자가 자기 특유의 성격을 발휘했는데, 가령 마르그리트는 생기발랄한 유쾌함으로, 라 투르 부인은 온화한 신앙심으로, 비르지니는 부드러운 애정으로, 폴은 솔직함과 다정함으로 다가갔지. 마리와 도맹그 역시 저들 나름의 도움을 주러 왔고말고. 한 사람이 상심한 것을 보면 모두가 상심했고, 한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네. 이처럼 연약한 식물들은 서로서로를 엮어매고 폭풍우를 함께 이겨내는 법일세.

날씨가 좋은 계절이면, 두 집안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보